

차의과학대학교

2025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구 분	위 원
재직위원	9인
참석위원	7인

1. 일 시 : 2024년 1월 9일(목) 15 : 00 ~ 16 : 00

2. 장 소 : 미래관 1007호

3. 위원 출·결사항

- 참석 위원: 강형곤, 심성한, 박진선, 김찬영, 이시우, 민영선
- 불참 위원: 이성기, 이소영
- 배석: 박재범, 김지훈, 이문호

4. 안건

- 2025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인상을 책정
- 대표서명(3인)

5. 회의 내용

가. 개회 선언

강형곤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교직원 및 학생 각 2인 이상을 포함한 재직 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여 성원됐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함

나. 안건 심의

○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인상을 책정

- 위원장이 등록금을 인상 배경과 인상 전 수도권 및 전국 대학교 평균 대비 우리 대학의 등록금 수준에 대해 설명함. 이를 근거로 미래융합대학 1학년 3.5% 인상, 인문계열(2~4학년) 동결, 간호, 약학을 제외한 자연계열(2~4학년) 7% 인상, 간호대학 10% 인상, 약학대학 10% 인상, 대학원(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동결을 인상(안)으로 제안함
- 위원장이 이에 대한 위원분들의 의견을 구함
- 박진선 위원이 인상했을 경우 교육부로부터의 패널티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함
- 이에 위원장이 인상 시 교육부로부터 2025년 국가장학금 2유형의 지원이 끊김을 설명함.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존 국가장학금 2유형을 수혜받은 학생의 경우 수혜액만큼 등록금(교내장학금)으로 보전할 예정임을 설명함
- 박진선 위원이 추가적으로 등록금 인상으로 대학의 수지는 마이너스라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추천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 이에 위원장이 등록금 인상 전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재단의 기부금 지원을 통해 대학을 운영해 왔음을 설명함. 하지만 대학혁신지원사업 재정 지원의 감소가 예정되고 코로나 및 전공의 파업 사태 등으로 인한 병원 수입감소로 인하여 재단의 재정지원의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학의 재정자립의 필요성을 느꼈고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설명함

서명 심성한 김찬영 2025

- 박진선 위원이 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임을 동감함
 - 정희찬 위원이 등록금 인상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할 계획인지 질의함
 - 위원장은 실험실습 개선, 실습지원 증가 등 학생들의 교육에 투자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임을 설명함
 - 김찬영 위원이 학생들이 학교의 재정부담을 학생들이 모두 부담을 해야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음. 앞서 말해 주신 연구, 실습지원 등 교육의 질을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 추후 학생들이 느낄 부담에 대한 장학제도 변경 계획등이 있는지 질의함
 - 위원장이 다시 한번 기존에 국가장학금 2유형을 수혜받은 학생들에게는 그 금액만큼 보전할 계획이며, 학생들이 실험실습실 등의 환경이 개선됐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함
 - 심성한 위원이 추가적으로 우리대학의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의 등록금 차이가 십여만원의内外로 다른 대학들에 비하여 계열간 차이가 적음을 설명함. 이에 실험을 진행하고 실습을 나가는 자연계열, 간호, 약학과 위주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학생들에게 요청함
 - 위원장이 인상에 대한 민영선 위원의 의견을 구함
 - 민영선 위원이 십몇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된 점 모든 물가가 인상된 점, 학습 기자재 뿐만 아니라 미래형 캠퍼스 조성을 위한 건물 구축계획이 있고, 재단의 재정도 녹녹지 않은 점을 봤을 때 학교의 자체적으로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듬
 - 김찬영 위원도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함. 다만, 학생들 입장에서 등록금 인상에 대해 납득할 수 방안을 같이 고민해주시기를 요청함
 - 이에 위원장이 학생지원처와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음을 설명하고 언제든지 학생회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를 요청함
 - 심성한 위원이 다시한번 국가장학금 2유형만큼의 장학금 지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학생위원들에게 대학에서 하는 사업 등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장학금 이외에 학생들이 많은 과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음 이에 학생회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많은 사업에 대해 학생들에게 홍보를 요청함
 - 이시우 위원도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됨
 - 위원장이 등록금 인상에 대한 다른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감
- 대표서명(3인)
- 위원장이 회의록 간서명 대표 3인을 심성한 위원, 김찬영 위원, 민영선 위원으로 제안하였고, 참석한 모든 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함

다. 폐회선언

위원장이 다른 논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함

서명	심성한	김찬영.	민영선
----	-----	------	-----

(한글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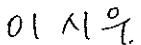
위원장 강형곤 

위원 심성한 

위원 이성기

위원 박진선 

위원 김찬영 

위원 이시우 

위원 정희찬 

위원 이소영

위원 민영선 